

엘리야와 함께 날아오르는 기도비상 (1)

자연과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

열왕기상 17:24

2019년 11월 6일

귀세페 안젤리 (Giuseppe Angeli),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



1. 엘리야
 - a. 에녹과 함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
 - b. 의미: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
2. 열왕기상 기록 상황
 - a. 기록 연대, BC 562-537년 포로 생활 중
 - b. 포로기 중에도 이스라엘의 참된 신은 누군가?
3. 엘리야 시대
 - a. 가장 암울했던 이스라엘 세 왕 시대에 하나님께 충성한 선지자
 - b.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

- c.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
 - i. 북조의 아하시야가 위를 이은 2년 후 후사 없이 죽으니 아합과 이세벨의 둘째 아들 여호람이 왕위 계승
 - ii. 엘리야는 이방 잡신을 포교하는 아합, 아하시야, 여호람 3대에 걸쳐 박해 중에 선지자 사명
- d. 정략결혼으로 널리 퍼진 바알신 사상
 - i.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오므리의 아들 아합
 - ii. 시돈 왕이요 바알을 섬기던 옛바알 딸 이세벨
 - iii. 시돈 왕은 정책적으로 이스라엘 왕 오므리와 사돈 맺어 이스라엘 신을 무력화
 - iv. 열왕기상 16:30-33절,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..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..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

4. 바알이 신으로 여겨진 시대

- a. 가나안 신화는 바알이 폭풍의 신
- b. 고대 우가릿 토판에는 바알이 물을 정복하는 신
- c. 번개와 물을 다스리는 신
- d. 농경시대에 풍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
- e.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 배경
- f. 진정한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 선포

첫째 사건: 동물과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

- 1. 엘리야의 등장과 도전 받는 하나님
 - a. 1절,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
 - b. 갑작스런 엘리야의 등장
 - i.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 이야기 없다

- ii.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
 - c.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세상 권력을 대항하는 선지자
 - d.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
 - i. 개인 신이 아니라 민족의 진정한 신 하나님
 - e.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→ 물과 불을 다스리는 바알의 능력에 대한 정면 도전
 - f.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진 왕과 백성 →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
2. 하나님의 말씀과 엘리야의 순종
- a. 3-5절,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.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. 그가 여호와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
 - b. 자연과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
 - c. 즉각 순종하는 엘리야
3. 하나님 말씀의 역사
- a. 6절,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,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
 - b. 까마귀를 움직이는 하나님
 - i. 부정한 짐승 (레 11:15절), 까마귀 먹지 말라 (신 14:14절)
 - ii. 자기 새끼도 잘 돌보지 않는 까마귀
 - iii. 노아 홍수와 까마귀 이야기
 - iv. 까마귀가 엘리야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 → 하나님 역사
 - c. 시내가 마르니라 → 말씀대로 일어난 역사
 - d. 엘리야, 까마귀, 자연도 순종
 - i. 하나님이 자연과 인생을 다스리는 진정한 신
 - e. 참 이스라엘의 모습 엘리야
 - f. 메말라가는 그릿시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원히 샘솟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

둘째 사건: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

1. 위기에 처한 하나님

- a. 구약에서 가장 보호 대상자인 과부와 그 아들의 죽음의 위협 앞에 선 엘리야
- b. 먹을 것이 떨어져 죽음 위기에 처한 과부와 아들
- c.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은 하나님인가? 바알인가?
- d. 이방 과부 여인에게도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

2. 바알의 본토로 보내시는 하나님

- a. 9절,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.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
- b. 바알 숭배 본산지인 페니키아 땅으로 보내는 하나님
- c. 참 신이 하나님이심을 강조

3. 죽음의 위기에 처한 여인

- a. 12절,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
- b. 과부가 택한 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것 아니라 죽음

4. 엘리야의 요청

- a. 11절,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
- b. 13절,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
- c. 떡 한 조각 없는 여인에게 마지막 먹을 것을 요구하는 선지자
- d. 믿음의 시험에는 확신 있는 믿음과 담대한 결단과 순종이 요구된다

5. 엘리야의 선포

- a. 14절,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

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

- b. 마지막 음식을 요구하고 무모한 약속을 하는 엘리야
- c.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 바알 시대에 하나님 이름의 능력을 선포

6. 순종하는 여인

- a. 15-16절,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
- b.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
- c.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
- d. 언젠가 천국에서 슬픔 없는 세상, 넘치는 축복의 열매를 기대하며

7. 이방 땅에 살면서 누구를 신뢰하고 무릎을 꿇을 것인가?

셋째 사건: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

1. 과부 아들의 죽음

- a. 17절,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
- b. 승리 후에 오는 위기 상황
- c. 구원의 감격 속에 찾아오는 시험과 어려움
- d. 엘리야 자신도 갈멜산 승리 후에 죽음의 위협 속에 도망치는 모습
- e. 기근의 도전이 아니라 죽음의 도전
- f. 인간의 생명을 다스리는 신은 누구?
- g. 가나안 신화에 바알은 폭풍과 비와 생명의 신

2. 엘리야의 기도

- a. 20-21절,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퍼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

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

- b. 죽은 아이를 향한 진정한 아픔으로 기도하는 엘리야
- c.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, 바울, 예수님

3. 응답하신 하나님

- a. 22절,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
- b. 동물, 자연, 화복, 생사를 다스리는 참 된 신이 하나님

4. 여인의 고백

- a. 24절,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
- b. 1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것,
- c.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
- d.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이방 여인을 통해 선포하게 하심

5.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 모형

- a.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의 자세로 나아감
 - i. 능력 없음이 문제 아니라 순종 없음이 문제다
 - ii. 죽기까지 순종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룬 엘리야와 예수님
- b. 이방 땅에도 두루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
- c. 죽은 아이를 살린 엘리야, 죽은 인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
- d. 죽은 아이의 증보자 된 엘리야, 인류의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

6. 자연과 인생을 주관하는 진정한 신은 하나님

- a. 자연
- b. 화복
- c. 생사